

학령전 아동의 고액학원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조사와
이를 통한 보육정책제안: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Investigating Mothers' Perception of Private High Tuition Fee
Institutions in Seoul and Geonggi-do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성연
동남보건대학 보육학과
부교수 김혜금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신혜원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ersity
Professor : Songyon, Cho

Department of Child Care Education, DongNam Health College
Associate Professor : Hye Gum, Kim

Department of Child Studies & Education, Seokyeong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Hyewon, Shi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nditions in private high tuition fee institutions and also assess mothers' perception for their children's preschool education. Participants were 37 mothers in Seoul and Geonggi-do, whowere interviewed individuall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78.9% of the mothers hadtheir children attend private high tuition fee institutions five days a week. Furthermore, 70% of their children aged three to five were enrolled in more than three early educational programs. Secondly, 43.2% of the institutions charged over 600,000 Won by month. 48.7% of the mothers have paid over 900,000 Won by month. Thirdly, 89.2% of the mothers

Corresponding Author : Hye Gum, Kim, Department of Child Care Education, DongNam Health College, 937 Jangja-Dong, Jangan-Ku, Suwon, Gyeonggi-Do, 440-714, Korea Tel: +82-31-249-6523 Fax: +82-31-249-6520 E-mail: khg@dongnam.ac.kr

were satisfied with the institutional services and convinced that the institutions would benefit in developing their children's wholesome characters and academy.

주제어(Key Words) : 어머니의 인식(mother's cognition), 학령전 아동(preschool children), 고액학원(private high tuition fee institution), 조기교육(early education)

I. 서론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던(1991. 8) 당시만 해도 보육은 취업률이 높은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대리보육'의 개념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2004년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고, 보육시설평가인증제가 실시되면서 보육서비스의 질은 매우 향상되었다. 이와 함께 보육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변화하면서 보육이 보편적이고 신뢰로운 영유아 보호와 교육을 담당한다는 인식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와 함께 참여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보육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보육규모는 양적·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보육 시설 수와 재원 영유아 수는 1990년 말 1,919개소의 48,000명이던 것이 2008년 말 현재 33,499개소의 1,135,502명으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이는 시설 수 대비로 약 17.5배, 보육 아동 수 대비로 약 23.6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에는 5.5%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을 제외한 94.5%를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등의 기여가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민간보육시설이나 법인보육시설 등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에 대한 지원은 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지원시설에 한정되고, 보육서비스도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온 경향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2007년부터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12월 현재 29,084개소의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45.9%인 15,390개소의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요구하는 부모들의 요구에 부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저렴하고 질 좋은 국공립 보육시설은 찾아보기도 어려워 부모들이 안심하고 영유아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부모들은 가능한 한 보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하고, 동

시에 보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자녀들에게 제공해주기를 원한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보다 좋은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해 자녀들이 개별적으로 배려받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문영경, 정치나와 이영(2008)의 조사연구 결과에서 전체 조사대상 어머니의 52.6%, 0세 어머니의 62.5%, 2세 어머니의 57.4%와 취업모의 59.2%가 보다 나은 시설이 있다면 보육비용을 추가로 더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부모들이 과도한 교육열을 보이는 이유는 조기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밝고 성공적인 미래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기대와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김영화, 1993; 박수진, 2001). 부모들은 현재와 같은 무한경쟁사회에서 자녀가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여 일찍부터 자녀에게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녀수의 감소로 각 가정에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들까지도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예전보다 많아져 조기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박수진, 2001). 특히 자녀가 있는 고소득 가족들은 자녀를 보다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자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08)에 의하면 월평균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정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정 보다 사교육비로 8.8배를 더 지출함으로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의 대상 연령도 점차 하향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 의영(2003)의 조사에서는 생후 12개월 미만에 사교육을 처음 시작하였고, 김희선(2006)의 조사에서는 1, 2세의 영아들이 사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학령전 영유아들이 한 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들이 받는 사교육의 개수는 3가지 이상이 62%나 되고, 심지어 10가지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며(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 2002), 평균 2.64개를 하고 있었고(안지영, 2003), 대부분은 만 4~5세에 집중되어 있었다(한지혜, 2004). 특히 여성가족부(2005)의 자료에 의하면 3~5세에 학원참여율이 급증하는데 학원에서 수강하는 과목으로는 인지·학습 측면에서는 국어와 수학이 많고, 예·체능 측면에서는 미술이 많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은 일찍부터 다양한 사교육

을 경험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사회적 성공을 바라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수행을 바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조기 사교육은 영유아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부추기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과 집단의 이익을 무시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을 갖게 하는 등 영유아의 전인으로서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우남희, 2004; 우남희, 백혜정, 김현신, 2005) 고비용으로 인해 각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신의 소신이나 양육에 대한 신념대로 자녀를 교육하기보다는 주변의 소개나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진 사교육을 자녀에게 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부모들의 태도가 시기에 따라 다양한 사교육의 유행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영유아의 발달 측면이나 공보육과 공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육과 교육 현실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과거에는 학령전 아동에게 피아노,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을 중심으로 한 특기교육이나 선행학습 중심의 교과목 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나(우남희, 현은자, 이종희, 1993), 최근에는 외국의 유명 프로그램을 수입하거나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고액학원이 등장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부모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고액학원은 정규 유아교육·보육기관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8989호, 2008. 3. 28 일부개정)'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로서 서비스의 질은 전적으로 그 기관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달려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관리감독도 거의 받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액학원들은 주로 외국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간혹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액학원은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고급스런 외관과 비싼 교재교구로 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고액학원들은 대개 과목별로 교사를 두는 경우가 많고, 보통 24개월부터 취학 전 연령의 유아들이 주로 이용한다. 이들은 프로그램 당 30~40분씩 진행하며, 하루 4~5시간씩 주 5일 수업하는 곳이 많고, 한 반당 8~10명의 소수정원제로 운영하는데 한 달 수업료는 30~90만 원대를 이룬다(중앙일보, 2008. 11. 25). 이들 고액학원으로는 위즈아일랜드, 킨더슐레, 아이슐레, 한국집보리 등이 대표적이며, 일명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어린이 대상 영어학원도 고액수강료를 받는 기관 중의 하나이다. 영어학원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한 반 정원이 10~12명이며, 각 반에 원어민교사와 한국인교사를 1명씩 배치하여 운영한다. 정규수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5시간 정도이며(한겨레, 2008. 3. 7) 교육비는 월

6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까지 다양하고(한국일보, 2007. 12. 12) 심지어 국립대 등록금의 4.3배가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경향신문, 2009. 7. 20).

높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학령 전 자녀를 놀이학교나 영어학원 등의 고액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은 부모의 과도한 욕심과 지적 발달에 편중된 자녀교육 풍토, 교육사업의 산업화, 일관성 없는 교육 및 보육정책 등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유아 교육과 보육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영유아들의 건전한 인성발달이나 사회·정서발달, 창의성 등의 균형 있는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리하여 정부는 해마다 보육예산을 증액하여 수요자인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육정책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나 보육시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많은 부모들이 한 자녀 이상을 두지 않으므로써 소수의 자녀들에게 최상의 양육과 교육환경을 제공해주고자 한다. 그에 따라 중류층 이상의 부모들은 보다 나은 물리적 시설과 환경을 찾아 보육시설이 아닌 고액학원에 영유아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정부나 개인 연구차원에서 고액학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액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인식수준이나 경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일반 사교육기관보다 조사대상을 구하기 어렵고, 고액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쉽게 자료조사에 응하려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의 학령전 영유아의 사교육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들(김보림, 엄정애, 2007; 박수진, 2001; 백혜정, 김현신, 우남희, 2005; 안지영, 2003; 여성가족부, 2005; 우남희 외, 2005; 우남희 외, 1993; 이기숙 외, 2002; 한지혜, 2004; 홍은자, 2001; 황혜신, 2003)도 모두 일반 학원에 다니는 영유아의 조기교육실태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부모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보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현재의 보육시설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왜 고액학원에 자녀들을 보내고, 고액학원의 어떤 측면이 부모들의 관심을 유도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를 고액학원에 보내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고액학원의 이용 실태와 어머니들의 고액학원에 대한 인식수준을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로의 개선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부모, 보육시설 종사자와 보육정책 입안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학령전 아동의 고액학원 이용 실태는 어떠한가?
- 둘째, 학령전 아동을 고액학원에 보내는 어머니의 자녀교육 방법은 어떠한가?
- 셋째, 학령전 아동의 고액학원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수준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고액학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강남구와 서초구)과 경기도(일산과 수원) 지역에서 월평균 사교육비가 60만원 이상 수준이거나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유명 고액학원 8곳을 유의표집하여 이들 기관에 학령전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 37명이었다. 이 중 2명의 자녀를 같은 기관에 보내는 가정이 있어서 연구대상 아동의 수는 38명이었다. 선정한 고액학원의 수가 적은 이유는 본 연구에서의 월평균 사교육비 선정기준이 일반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단순한 실태조사의 성격보다는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어머니들의 인식 수준을 알아보고자 계획하여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기관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선정된 고액학원들은 2세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고, 수업은 연령별,

과목별로 대부분 주5일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교사 대 아동비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본사 자체의 교사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교사의 질을 관리하고 있었고, 교사들은 전공자들을 채용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고액학원에 다니는 학령전 아동과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액학원에 다니는 자녀 연령은 5세가 가장 많았고 2세 이하인 경우도 12명(31.6%)이나 되었다. 자녀수는 의동이 5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3명 이상인 경우도 2명(5.3%)이 있었다. 고액학원에 다니는 자녀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26명(68.4%)으로 가장 많았고, 셋째도 2명(5.3%)이 있었다. 부모의 연령은 모두 30대가 대부분(부 78.4%, 모 86.5%)이었고, 교육수준은 모두 대졸 이상이며,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에 전문직이 17명(46.0%)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30명(81.1%)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900만원 이상인 경우가 6명(16.2%), 700-900만원 미만인 9명(24.3%), 500-700만원 미만인 10명(27%)으로 25명(67.5%)의 월평균 수입이 500만원 이상이었다. 300만원 미만인 가정은 전혀 없었고, 300-500만원 미만인 12명(32.5%)으로 가장 많았으나 900만원 이상인 경우도 6명(16.2%)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고액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연령은 30대로 젊고, 교육수준도 대졸이상으로 높았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도 매우 높았다.

2. 면접지

본 연구의 심층면접을 위해 3인의 연구자들이 면접내용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면접문항을 선정하였으며, 면접은 반구조화된 면접지로 작성하여 실시하였다. 선정한 면접범주와

<표 1> 조사대상 기관의 특성

구분	내용	운영시간	비고
대상연령	· 0개월부터의 영아 대상 운영 1곳 · 만 1세부터의 유아 대상 운영 1곳 · 만 2세부터의 유아 대상 운영 6곳	주 1-2회 주 1-2회 반나절	
프로그램 특성	· 연령별 반편성 · 수업 : 과목별(영어, 가베, 집, 아트,유리드믹스, 음악, 요리, 수학 등) 운영	30분 단위의 과목별 수업	과목별 수업 담당교사가 수업
교사 대 아동 비율	· 24개월 미만 영아는 1:4 (영아는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기도 함.) · 3세 이상은 1:4~12		
수업시간	· 주 5일 : 오전 9시~오후 3시 · 주 1~2회	하루 5~6시간 회당 45~70분	
수업료	· 주 5일 : 75~100만원 · 주 1~2회 : 13~15만원		
운영형태	· 대부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		국내외 개발
교사전공	·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관련 전공자		
교사연수	· 본사 자체의 교사연수 프로그램		

3. 면접 실시

서울과 경기지역의 고액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37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수 년 간의 연구와 면접경험이 있는 3인의 연구자들이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 간의 면접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작성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해당 기관의 기관장실이나 빈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어머니 1인당 면접 시간은 래포형성 시간을 포함하여 평균 1시간 30분~2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면접 내용은 현장에서 기록하는 방식을 우선으로 하였으나 길어지는 경우에는 녹음기를 이용하였고, 녹음된 자료는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세부 항목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면접 내용에 대한 어머니들의 응답내용은 범주별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학령 전 아동의 고액학원 이용실태

1) 월 사교육비와 월 총사교육비

학령 전 아동의 월 사교육비는 30만원 미만이 32.5%로 가장 높았으나 이는 주1회를 이용하는 2세 이하의 경우였다. 주5회를 이용하는 경우는 60만원 이상으로써 43.2%를 차지하고 있어 어머니들은 매월 상당한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였다. 특히 90만원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의 월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18.9%나 되어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령전 아동에게조차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자녀에게 지출하는 월 총사교육비는 150만원 이상이 2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90만원 미만이 21.6%였다. 전체적으로 월 총사교육비를 9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는 48.7%로 매월 한 자녀 당 상당한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고액학원에 보낸 기간과 하루 평균 이용시간 및 숙제 유무

(N = 37)					
보낸 기간	n(%)	하루 평균 이용 시간	n(%)	숙제 유무	n(%)
1년 미만	24(63.2)	50분~1시간(주1회)	8(21.1)	주2~5회	유무
		2시간 미만	6(15.8)		
1~2년 미만	8(21.0)	4~5시간 미만	9(23.7)	주 1회	해당사항 없음
2~3년 미만	6(15.8)	6시간 미만	11(29.0)		
		6시간 이상	4(10.4)		
전체	37(100)	전체	37(100)	전체	37(100)

〈표 4〉 월 사교육비와 월 총사교육비

(N = 37)			
월 사교육비	n(%)	월 총사교육비	n(%)
30만원 미만	12(32.5)	30만원 미만	4(10.8)
30~60만원 미만	9(24.3)	30~60만원 미만	3(8.1)
60~90만원 미만	9(24.3)	60~90만원 미만	8(21.6)
90~120만원 미만	5(13.5)	90~120만원 미만	3(8.1)
120만원 이상	2(5.4)	120~150만원 미만	6(16.2)
		150만원 이상	9(24.4)
		무응답	4(10.8)
전체	37(100)	전체	37(100)

2) 고액학원 이용 아동의 연령과 주당 이용 횟수

2세 이하의 연령에서 1개 이상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31.6%(12명)이고, 3~5세가 68.4%(26명)를 차지함으로써 상당수의 아동들이 일찍부터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세 이하 아동들 중 33.3%는 주 5회 기관을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3~5개의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도 33.3%에 이르고 있었다. 3~5세는 모두 주 5회 기관을 이용하였고, 69.2%는 3~5개의 기관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주 1회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은 2세 이하의 아동들이었고, 2세 이하인 경우에는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두 개 이상의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다양한 것을 가르치고 각 기관의 프로그램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표 5〉 학령전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 수

(N = 38)					
연령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수(%)			주 5회 이용	주 1회 이용
	1~2개	3~5개	계		
2세 이하	8(21.1)	4(10.5)	12(31.6)	4(10.5)	8(21.0)
3~5세	8(21.1)	18(47.3)	26(68.4)	26(68.4)	0(0.0)
전체	16(42.2)	22(57.8)	38(100)	30(78.9)	8(21.0)

3) 현 고액학원에 보낸 기간과 하루 평균 이용 시간 및 숙제 유무

현재의 기관에 다닌 기간은 1년 미만이 63.2%로 가장 많았고, 2년 이상 비교적 오랜 기간 다닌 경우도 15.8%였다. 또

한 하루 평균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4시간 이상이 63.1%였으며, 이중 10.4%는 6시간 이상을 기관에서 보내고 있었다. 한편, 주 1회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21.1%로서 주로 2세 이하의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주 2회 이상을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숙제도 비교적 많이 내주는 경향(43.3%)이 있었다. 숙제의 내용은 읽기, 쓰기, 단어 암기, 엄마에게 전달하기 등으로 주로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는 내용이었다.

4) 현 기관을 알게 된 경위와 선택 동기

현재의 기관을 알게 된 경위와 선택하게 된 동기는 주로 친구 소개를 통해 알게 된 경우(78.4%)가 많아 이미 기관에 보내본 사람들의 인식 정도에 따라 고액학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TV, 라디오, 잡지 등의 대중매체 광고(16.2%)는 현 기관을 알게 되는데 그리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현 기관에 보내게 된 동기는 51.4%가 부모 자신이 원해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웃의 권유(27.0%)였다. 이로서 어머니들이 고액학원을 선택하는데 친구나

이웃사람의 영향이 컸으며, 이는 아동보다 어머니 자신의 바람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어머니들의 자녀교육방법

1) 자녀교육방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과 미래 자녀상

고액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의 70.3%는 성격적인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녀를 교육하였고, 다음으로 사회·정서적인 측면(24.3%)이었다. 또한 미래 희망하는 자녀상으로는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62.2%)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18.9%)이라고 응답하였다.

2) 자녀교육방법

고액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은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하는 자녀교육으로 인성교육(62.2%)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기본생활습관(29.7%)을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한글 교육과 같은 능력 위주의 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어머니도 2명이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들이 실제로 자녀에게 가장 먼저 시킨 교육은 기본생활습관 교육(37.9%)이었고, 다음이 인성교육(32.4%)이었다. 이에 반해 체육(13.5%)이나 영어 등의 외국어교육(8.1%), 몬테소리교육(5.4%) 등을 먼저 시킨 경우도 있었다.

〈표 7〉 고액학원을 알게 된 경위와 보내게 된 동기 (N = 37)

알게 된 경위	n(%)	보내게 된 동기	n(%)
친구소개	29(78.4)	자녀가 원해서	2(5.4)
대중매체	6(16.2)	부모 자신이 원해서	19(51.4)
전단지	1(2.7)	이웃의 권유로	10(27.0)
직접선택	1(2.7)	대중매체를 보고	2(5.4)
		기타	4(10.8)
전체	37(100)	전체	37(100)

〈표 8〉 자녀교육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과 미래 자녀상 (N = 37)

자녀교육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n(%)	미래 희망하는 자녀상	n(%)
성격	26(70.3)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	23(62.2)
정서(배려심, 이타심 등)	5(13.5)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7(18.9)
사회성(사회성, 독립심, 협동심 등)	4(10.8)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3(8.1)
인지(학습능력, 외국어능력 등)	1(2.7)	경제적인 부를 획득한 사람	2(5.4)
기타	1(2.7)	기타	2(5.4)
전체	37(100)	전체	37(100)

〈표 9〉 자녀에게 먼저 실시되어 한다고 생각하는 교육과 실제로 가장 먼저 실시한 교육 (N = 37)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육	n(%)	실제로 가장 먼저 실시한 교육	n(%)
인성교육(사회성, 독립심 등)	23(62.2)	기본생활습관	14(37.9)
기본생활습관(씻기, 옷입기, 용변보기 등)	11(29.7)	인성교육	12(32.4)
한글	2(5.4)	체육	5(13.5)
기타	1(2.7)	외국어(영어 등)	3(8.1)
		몬테소리	2(5.4)
		예능	1(2.7)
전체	37(100)	전체	37(100)

3. 고액학원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1) 월 사교육비 수준과 월 총사교육비 수준 및 적정 사교육 수

현재 지출하고 있는 월 사교육비 수준에 대해 '약간 비싸다'와 '매우 비싸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3.8%로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현재의 고액학원의 월 사교육비가 비싸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월 총사교육비 수준의 적정수준은 30~60만원(37.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0~120만원(21.6%)이라고 응답함으로써 매월 지출하는 사교육비의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표 10〉 월 사교육비 수준과 월 총사교육비의 적정수준 (N = 37)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육	n(%)	실제로 가장 먼저 실시한 교육	n(%)
매우 비싸다	8(21.6)	30만원 미만	2(5.4)
약간 비싸다	23(62.2)	30~60만원 미만	14(37.9)
적당하다	5(13.5)	60~90만원 미만	7(18.9)
별로 비싸지 않다	1(2.7)	90~120만원 미만	8(21.6)
전혀 비싸지 않다	0(0.0)	120~150만원 미만	1(2.7)
		150만원 이상	3(8.1)
		무응답	2(5.4)
전체	37(100)	전체	37(100)

2) 적정 사교육 수 및 하루 평균 필요한 교육시간
높은 사교육비 수준에도 불구하고 70.3%의 어머니들은

학령전 자녀에게 2~3가지 종류의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적당하고 생각하였고, 1가지라고 응답한 경우는 13.5%에 불과하였다. 특히 어머니들은 체육, 한글, 영어에 대한 사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령전 사교육에 대한 적정 시간으로는 56.8%의 어머니들이 2~3시간이라고 응답하였다.

2) 기관 선택 이유와 기준

어머니들은 프로그램, 교사, 물리적 환경과 급·간식에 대한 내용에 관심을 두고 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프로그램 내용(43.3%)이었고, 다음으로 지리적인 접근성(18.9%)과 자녀의 발달적 측면(16.2%)을 고려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들이 비용은 비싸더라도 자녀에게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고자 하는 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11〉 적정 사교육 수와 하루 평균 필요한 교육시간 (N = 37)

적정 사교육 수	n(%)	하루 평균 필요한 교육시간	n(%)
1가지	5(13.5)	1시간	6(16.2)
2~3가지	26(70.3)	2~3시간	21(56.8)
4가지	5(13.5)	4~5시간	7(18.9)
무응답	1(2.7)	6시간이상	2(5.4)
		무응답	1(2.7)
전체	37(100)	전체	37(100)

〈표 12〉 현 기관 선택 이유 (N = 37)

범주	내용	n(%)
프로그램	좋은 물리적 환경	3(8.1)
	차별화된 프로그램	16(43.3)
	유기농 재료의 사용과 직접 조리 하는 등 좋은 간식	1(2.7)
	주변인 추천	4(10.8)
	발달에 적합하고 창의적 사고력과 사회성 발달 강조	7(16.2)
	지리적 접근성	7(18.9)
교사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서	11(29.7)
	교사의 학력이나 경력이 뛰어나서	1(2.7)
	교사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어서	23(62.2)
	교사가 자녀를 각별히 신경 써 주어서	2(5.4)
물리적 환경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고급스러워서	6(16.2)
	특별한 교구를 사용해서	7(18.9)
	집과 가깝거나 지역적으로 근접하여	15(40.6)
	기 타	9(24.3)
과목별 수업	효과적	34(91.9)
	비효과적	3(8.1)
급·간식	유기농 재료를 이용	7(18.9)
	직접 조리	14(37.9)
	유명 푸드전문 업체의 급·간식 제공	3(8.1)
	간식 없음	5(13.5)
	주1회 이용	8(21.6)
	주2~5회 이용	8(21.6)
	해당 사항 없음	8(21.6)
	전체	37(100)

이러한 선택 이유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프로그램 면에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서 소규모 학급은 영으로 교사가 아동의 개인적 성향에 맞게 교육하고 아동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더 많이 하며, 대부분 과목별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전문적인 강사가 와서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지도하여 자녀들이 보다 폭넓은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어머니들은 과목별 수업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응답(91.9%)함으로써 이러한 수업을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어머니들은 각 내용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고, 어릴 적부터 특화된 부분을 배우며,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과목별 수업 진행 방법이 좋은 않다고 응답한 경우(8.1%)는 각 분야별 교사들이 아동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개별 아동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비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관을 다니기 전에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낸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현재의 기관에 더 잘 적응하였고 기관에 다니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둘째, 교사들에 대한 면에서 선택한 이유로는 교사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고(62.2%),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기(29.7%)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점에서 어머니들은 현재의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밝고 친절하며 경험도 풍부하고 상황에 민감하게 잘 대처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동을 잘 이해하여 대처하는 것에 대해 믿음직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물리적 환경의 선택 기준은 집과 가깝거나 지역적으로 근접하고(40.6%), 특별한 교구를 사용하며(18.9%),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기(16.2%)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급·간식에 대한 것에서는 직접 조리하여 아동들에게 제공해주고(37.9%),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기(18.9%)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급·간식에 대해 어머니들은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한 자연식을 제공하려고 하고 유기농 식단을 운영하며, 아침을 먹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오전 간식으로 아침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현재의 기관에 대해 신뢰가 간다고 응답하였다.

3) 고액학원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고액학원에 대해 어머니들의 89.2%

〈표 13〉 고액학원에 대한 만족도 (N = 37)

문항	n(%)
매우 만족한다.	17(45.9)
약간 만족한다.	16(43.3)
약간 만족하지 않는다.	4(10.8)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0.0)
전 체	37(100)

(33명)가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고액학원에 대해 만족하였다.

고액학원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로 어머니들은 첫째, 학급의 교사 대 아동비율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비해 낮아 교사가 아동의 개별적인 성향이나 정서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 아동의 발달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어서, 둘째,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리적 환경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므로, 셋째,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해주므로 별도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넷째, 기관이 적극적으로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었다. 한편, 약간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는 처음 생각했던 것에 비해 학급당 아동수가 많고, 바깥놀이 시설이 없으며, 물리적인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표 14〉 고액학원의 도움 여부와 고액학원에 대한 기대 (N = 37)

범주	내용	n(%)
고액학원의 도움 여부	도움이 됨	33(89.2)
	도움이 안됨	3(8.1)
	무응답	1(2.7)
고액학원에 대한 기대	장래 준비를 위해 필요함	4(10.8)
	남에게 뒤지지 않도록 도와줌	2(5.4)
	남들과 어울리고 좋은 친구들과 사귀	17(46.0)
	자녀의 적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제공함	13(35.2)
	세계인으로 키우는데 도움이 됨	1(2.7)
전체		37(100)

4) 고액학원의 도움과 기대

조사대상 어머니들의 89.2%는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학원에 다님으로써 상당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줄 수 있고 선행학습을 함으로써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다른 또래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반면, 학령전 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어머니들(8.1%)은 너무 빠른 선행학습이 오히려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여 공부를 게을리할까봐 우려된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어머니들은 고액학원에서의 교육이 자녀에게 남들과 어울리고 좋은 친구를 사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46.0%)이고, 자녀의 적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줄 것(35.2%)이라고 기대하였다. 그 이유로 어머니들은 고액학원에 다니는 자녀가 제공되는 각종 경험들을 재미있어 하고 좋아하며, 낯선 곳에 대한 거부감이 있던 아이가 교사의 세심한 배려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쉽게 기관에 적응하며, 친구들과 놀면서 사회성이 길러진다고 지적하였다.

5) 숙제에 대한 인식

취학 전 사교육기관에서 아동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1.6%(8명)이었고, 1명의 무응답을 제외한 75.7%(28명)는 숙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숙제가 필요한 이유로 어머니들은 아동이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하는 습관을 기르고 반복을 통해 복습하는 것이 아동의 교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숙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어머니들은 아직 아동이 어리므로 숙제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기는 감성과 인성교육이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IV. 논의 및 정책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액학원을 임의 표집하여 그 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과 일대일 면접을 통해 고액학원의 실태와 사교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산출된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전 아동의 고액학원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2세 이하의 매우 어린 연령도 고액학원에 다님으로써 조사대상 영아의 3 정도가 평균 주5회 기관을 이용하였고, 평균 주5회를 이용하는 3~5세 아동 중 70%는 고액학원 외에 3~5개의 별도의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3~5세 아동의 76.9%가 특기/과외교육을 받는다는 우남희 외(1993)의 연구결과, 취학전 유아의 약 86%가 조기사교육을 받는다는 이기숙 외(2002)의 연구결과, 3~5세 유아의 87.6%가 유치원 정규교육 외의 조기특기교육을 받는다는 안지영(2003)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뿐만 아니라 조기교육을 시작한 시기가 생후 12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다는 정의영(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5세 이하의 전 연령범위에서 학령전 아동의 학원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사교육의 시작 연령도 갈수록 하향화되고 있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이용하는 기관 유형이나 수도 차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고액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의 70% 이상이 학령전 자녀에게 2~3가지의 조기특기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체육, 한글, 영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던 결과는 이기숙 외(2002)의 연구결과에서 학령 전 유아에게 2~3가지의 조기특기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했던 것과도 일치한다. 또한 고액학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들의 63.1%는 주5회,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을 기관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이는 조기사교육에 소모하는 시간이 1주일에 평균 6회, 하루 평균 4.8시간의 교육을 받는다는 김지경(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학령전 유아들은 주5~6회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을 각종 학원에서 보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세 미만의 영아들조차 어머니와 함께 주1회 각종 사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21.1%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볼 때, 아직 언어발달이 미숙한 영아를 포함하여 3~5세 유아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고 있어 정규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추구하는 전인교육이라는 교육목표보다는 특기를 신장하거나 학습 관련 교육내용을 매우 이른 시기부터 접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발달적 특성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일찍 조기특기교육에 노출됨으로써 영유아들은 건전한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둘째, 고액학원의 월 사교육비는 30만원 미만이 32.5%로 가장 높았으나 이는 주로 주1회를 이용하는 2세 이하였으며, 그 이상의 연령에서는 43.2%가 60만원 이상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은 학령전 자녀들에게도 상당한 수준의 월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학령전 자녀에게 지출하는 월 총 사교육비로 9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가 48.7%로써 한 자녀 당 매월 지출하는 사교육비 수준이 매우 높았다. 상당히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어머니들은 모두 대졸이상이었으며, 가정의 월평균 소득도 500만원 이상인 가정이 67.5%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4년도 취학전 자녀의 전국 월평균 사교육비가 7만3천원(통계청, 2008)이었던 것이나 2008년 3분기 도시가구의 월평균 보충교육비가 21만9,968원(중앙일보, 2008. 11. 25)인 결과와 비교해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비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2008년 소득수준 상위 20% 계층의 사교육비가 월평균 32만1,253원으로 하위 20%의 4만6,240원에 비해 6.9배나 더 많았던 결과(경향신문, 2009. 7. 20)와 소득이 아동 1인당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도시에 거주하고 어머니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지닌 경우에 교육비 지출이 많았던 여성가족부(2005)의 조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결국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동 1인당 소요되는 교육비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본 조사대상 어머니들 중 80% 이상이 현재 지출하고 있는 월 사교육비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면서도 고비용의 사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본 조사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비록 고액학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조사대상 어머니들의 37.9%는 월 총사교육비로 30~60만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한 반면, 조사대상 어머니들의 21.6%는 월 총사교육비로 90~120만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응답하기도 하여 사교육비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중적인 사고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즉, 이성적으로는 자녀 1인당 월 총사교육비의 적정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시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는 자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한 액수에 상관없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었다. 특히 주1회 이용하는 사교육비로 30만원의 고액을 지불하거나, 60만원 이상의 비용을 월 총사교육비로 지출한다는 점은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자녀를 고액학원에 보내고 있었다.

한편, 고액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의 89.2%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고액학원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만족하는 이유로 어머니들은 학급의 낮은 교사 대 아동비,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리적 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 적극적인 부모의 의견 반영 등을 지적하였다. 즉, 어머니들의 학원 선정기준은 낮은 교사 대 아동비율과 같은 인적 환경과 안전한 물리적 환경, 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기관의 분위기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고액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은 자녀교육 시 성격적인 면(70.3%)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인성교육(62.2%)을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기본생활습관교육(37.9%)을 가장 먼저 시켰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인성지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여성가족부(2005)의 조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영유아기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측면이 인성과 기본생활습관 교육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점은 다소 상충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들이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성격이나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한글, 영어 등의 학습과 관련된 교육이 취학 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볼 때 고액학원에 학령전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은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양가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본 조사에 응했던 어머니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 시대의 자녀교육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는 향후 부모들의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넷째, 조사대상 어머니들의 89.2%는 고액학원이 자녀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줄 수 있고 선행학습을 함으로써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다른 또래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했던 어머니들의 결과와 상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고액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학업과 관련된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어머니들은 조기교육이 필요하고 일찍 시작할수록 교육에 유리하다고 인식한 박수진(2001), 박지현, 이숙현과 백진아(2005), 이기숙 외(2002)의 연구결과들과 일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기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학업때문이라고 보고한 우남희 외(1992)의 연구결과와 지능개발과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시킨다고 보고한 이기숙 외(2002)와 홍은자(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자녀교육에서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인성적인 측면보다는 초등학교 이후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고액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은 인성보다 성적을 중시하는 현 교육풍토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통계청 조사 결과, 성적 상위 10% 학생 중 87.7%가 사교육을 받고, 비용은 1인당 월평균 31만5,000원이었으나 성적 하위 20% 학생들은 51.6%만 사교육을 받고, 월평균 비용도 12만9,000원에 그쳐 고비용의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유지한다는 결과(조선일보, 2009. 7. 22)를 통해서도 부모들로 하여금 일찍부터 자녀를 고액학원에 보내는 것을 부추킨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비록 어머니들이 바람직한 자녀교육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경쟁이 치열하고 성적과 입시를 중시하는 현 사회분위기에서는 자신의 자녀교육신념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즉, 어머니들의 조기교육에 대한 막연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학령전의 매우 어린 연령의 자녀에게도 조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유아기에 접하는 다양한 조기교육이 부모의 기대처럼 향후 자녀의 학업과 이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이른 시기의 조기교육은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의 과도한 조기교육이 언어지체나 주의력 산만 등을 초래해 성장을 방해함으로써 소아정신과를 찾는 아동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자녀의 공부스트레스는 부모의 탓이라고 지적한 기사들(동아일보, 2001. 3. 9; 주간동아, 2009. 3. 24)에서도 잘 지적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재 영유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에게 올바른 자녀교육관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에 적합한 교육환경과 교육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부모교육이 부모가 되기 전부터 제공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유아교육 기관이나 보육시설 및 대중매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어머니들이 현재의 고액학원을 선택하게 된 우선적 기준은 프로그램 내용이었고, 현재의 기관을 알게 된 경위는 다른 어머니들이나 친구, 가족 등의 소개가 가장 많았다. 이는 기관의 서비스의 질과 연결되는 것으로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고,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어머니들은 자

녀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교육내용이면서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호하며 이는 지리적 접근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기관의 우수성을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소개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기관의 서비스를 미리 받아본 사람들이 그 기관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아교육·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머니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하고 안전한 교육·보육시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안내와 바람직한 영유아기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단순히 외관이 멋있고 화려하다고 해서 영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을 하고 있음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이해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어떠한 측면이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하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 어머니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보육정책을 위한 제언

고액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과 일대일 면접을 통해 분석된 학령전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육정책에의 반영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액학원에 보내는 어머니들 중에는 학원 수업을 마친 후에 별도의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이 많았다. 그 이유로 어머니들은 각 기관의 프로그램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대표적인 부분들이 한글, 영어나 체육 등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러한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령별로 표준보육과정 중의 언어활동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해줄 수 있는 영아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부모의 육아 관련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육아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도 동시에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들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언어교육프로그램과 신체 및 사회정서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수의 어머니들이 보육시설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특별활동이나 학습 지향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고액학원과 같은 다른 기관에서 이를 충족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전국의 많은 유아교육·보육시설에서도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보육시설 1,00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활동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한 이미화와 김은영(2008)에 의하면,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95.4%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었고, 평균 3개 정도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의무적으로(64.7%), 외무강사가 담당하여(60.7%), 오전시간대(45.1%)에 실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상당수의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의 양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학습위주의 조기교육이 되지 않도록 보육시설 특별활동 프로그램 내용을 점검하고 영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국의 대다수의 보육시설이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그만큼 부모들의 요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육시설에서의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지양하면서 이를 양성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은 종일제로 운영되어 정규 수업 이외의 특별활동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정규 보육과정의 충실한 운영범위 내에서 특별활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한 강사들이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지도하게 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위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특별활동의 실시가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부모의 욕구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하면 고액학원의 월 사교육비가 비싸다 할지라도 해당 기관에 보낸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이 많았다. 이는 현재의 보육시설에 대한 열악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들은 고액학원이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고, 물리적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이라고 생각하며, 다양한 학습경험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부모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부모들의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본 조사결과에서 현 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더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교사 인건비의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교육교사제의 1:1 보육과 0세아 전용시설의 1:2 보육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던 임양미, 구현아, 노성향과 이혜선(2008), 임양미, 구현아와 안효금(2009)의 연구결과들을 보더라도 부모들은 자녀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살피는데 있어서 낮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볼 때 특히 만 0세아

반의 경우 1:1 보육이나 1:2 보육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법적으로 보육시설에서의 만 3세 이상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15~20이지만 고액학원들은 1:3~5를 유지함으로써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었다.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유아의 발달 측면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피로도를 낮춰 교사들이 영유아들과 더 충분하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물론 과노동으로 인한 보육교사들의 이직율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보육교사들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적성에 맞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를 선택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임정숙(1997)의 연구결과와 다수의 영유아들과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근무만족도가 낮아져 이직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조성연(2005)의 연구결과를 볼 때 교사들의 보육활동을 위해 보다 나은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들에게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과 교재 연구시간을 제공해주고, 보조교사제를 두거나 교대근무를 통해 보육교사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김혜금, 2007).

셋째, 조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보육환경과 보육서비스의 질이 우수하다면 자녀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보다 위생적이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에만 시설개·보수비를 지원하지 말고, 보육시설의 94.5%나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도 환경개선지원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예산안의 확보가 절실하다.

넷째, 고액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은 월 사교육비로 30~6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를 통해 보육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만 5세아의 경우에 2009년 현재 정부에서 고시한 보육료 상한가는 17만2천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고액학원이 4~5시간씩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한 반 정원이 8~10명이며, 1인당 월 사교육비가 30~90만원대임을 고려할 때 보육시설의 경우에도 보육시간을 반일제와 종일제로 구분하고 반별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육료의 현실화를 통해 보육프로그램을 지역별, 시설별로 다양화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육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우수한 질적 수준을 갖춘 보육시설을 부모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2007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육시설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을 지속함으로써 발굴된 우수프로그램을 보육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은 보육교사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보육현장에 적합한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보육시설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임의 표집된 고액 사설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함에 따라 전체 고액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자료 수집이 쉽지 않은 고액 사설학원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보육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경향신문(2009. 7. 20). 강남 영어유치원 年 1800만원...국립 대 연평균 등록금의 4.3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201821315&code=940401에서 2009년 7월 23일 인출.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육통계**.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김보림, 엄정애(2007). 유아 조기특기교육의 실태와 어머니 양육신념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8), 13-24.

김영화(1993). 학부모의 교육열: 사회계층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0(4), 173-197.

김지경(2003). **자녀 연령별 사교육 이용 유형과 지출비용**.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김혜금(2007). 2008 보육사업 지침 개정 방향. 2008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토론회, 7-28.

김희선(2006). 유아기 학부모의 교육수요 및 경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아일보(2001. 3. 9). 돌도 안 된 아기에 “ABC...”.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103090411>에서 2009년 6월 16일 인출.

문영경, 정지나, 이영(2008). 민간보육시설 이용자의 영아보육 만족도 및 요구도. **한국영유아보육학**, 54, 163-187.

박수진(2001).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조기 특기교육에 관한 실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지현, 이숙현, 백진아(2005). 어머니 특성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1), 157-179.

백혜정, 김현신, 우남희(2005). 조기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3, 23-43.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년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안지영(2003).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실태와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 스트레스 및 성취 압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11), 95-111.
- 여성가족부(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 우남희(2004). 아동의 권리와 한국의 조기교육. **아동권리연구**, 8(2), 189-207.
- 우남희, 백혜정, 김현신(2005). 초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치원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 우남희, 현은자, 이종희(1993). 사설학원과 가정 중심의 조기교육 실태연구. **유아교육연구**, 13, 49-64.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윤희(2002). 가정에서의 유아조기·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3), 153-171.
- 이미화, 김은영(2008).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 **유아교육학논집**, 12(1), 61-80.
- 임양미, 구현아, 노성향, 이혜선(2008). **0세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임양미, 구현아, 안효금(2009). **경기도 가정보육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임정숙(1997). 보육교사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의영(2003). 영아 조기교육의 실태 및 어머니의 인식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선일보(2009. 7. 22). [위키퍼어 300만명 시대] [3] “부자 아빠·가난한 아빠 따라... 유치원부터 행로 갈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9072202580671234&n_ewssetid=470에서 2009년 7월 23일 인출.
- 조성연(2005).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소진.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69-79.
- 주간동아(2009. 3. 24). 자녀의 공부 스트레스 부모 욕심 탓 아닌가?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2009/03/20/200903200500055/200903200500055_1.html에서 2009년 6월 16일 인출.
- 중앙일보(2008. 11. 25). 놀이학교, 교육 효과·교과 내용 꼼꼼히 따져야.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392684에서 2009년 1월 22일 인출.
- 통계청(2008).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 한겨레(2008. 3. 7). 영어유치원 상담 받아보니 ‘강남-비강남’ 차이 크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4066.html에서 2009년 2월 4일 인출.
- 한국일보(2007. 12. 12). 우리 아이 ‘원어민 영어유치원’에 맡겨볼까.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12&newsid=20071212190708075&p=hankooki>에서 2009년 2월 4일 인출.
- 한지혜(2004).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조기교육열. **열린유아교육연구**, 9(1), 219-251.
- 홍은자(2001). 어머니 성취압력과 학원·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혜신(2003). 조기교육에 대한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열린교육연구**, 11(2), 69-85.

접 수 일 : 2009년 6월 26일
 심사시작일 : 2009년 7월 3일
 게재확정일 : 2009년 8월 13일